

임용현 상임활동가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이 된 기후재난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요즘인데요. 이렇게 점점 드세게, 점점 드높아지는 기후위기의 파고에 맞서 나와 공동체를 지켜줄 두터운 장막, 어디 없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냉난방 걱정 없는 '집다운 집'에서 지낼 권리, 극한의 날씨엔 일손을 놓고 쉴 권리, 나아가 사회와 일터 곳곳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그렇게 모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될 때 지금의 위기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매년 9월이면 UN 총회 개최에 앞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기후시위가 펼쳐집니다. 한국에서도 9월 27일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지요?

연구소가 그동안 노동자건강권 실현을 위해 줄기차게 외쳐 온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기후정의!"를 외치며 "당장 멈춰!"(기후파업) 운동을 회원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올해 927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며 연구소의 각오와 구상도 새롭게 다져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벌써부터 설레고 신나지 않나요?

